외모 가꾸는 '초식남' 뜬다

'초식남'이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초식남'이란 연애에는 관심없지만 패션·미용 등 외모 가꾸는 데는 관심이 많은 자기관리에 철저한 남성을 뜻한다.

올 초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통해 꽃남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더니 최근에는 '초식남'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남성들이 미용과 패션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자 관련업계도 덩달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8월 현재 남성의류 매장의 매출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TI 포맨 (60%), 헤지스(10%), 갤럭시(30%), 로가디스(33%), 마에스트로(7%), 닥스(12%) 매출이 불황에도 늘었다. 주로 캐주얼 정장을 비롯해 캐주얼 의류가 많이 팔렸다.

신사복 등 대부분의 의류 매장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에 비하면 캐주얼 브랜드를 비롯해 캐주얼 의류의 성장세는 눈에 띈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신사복 코너 매출은 올 들어 12%나 하락했지만 남성캐주얼 코너는 1.4% 매출이 소폭 증가했다.

스포츠 대신 뷰티·자기 관리에 관심

캐주얼 정장·남성용 화장품 매출 급증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는 지난달 슬림한 라인의 남성용 9부 팬츠가 8천여건이 판매됐으며 전달보다 22% 증가했다. 옥션에서도 9부 팬츠가 6~7월 들어 월평균 300개 이상 팔리면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2배나 늘었다.

옷 라인이 슬림해지면서 관련 패션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무거운 구두 대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단화(낮은 굽 구두)나 스니커즈(운동화의 일종)가, 지갑보다 얇은 머니클립 등을 찾는 남성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늘자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2월까지 'Mr.Dandy his style'를 주제로 연중 테마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미스터 댄디'라는 가상인물을 설정해 고객에게 어울리는 코디법, 패션아이템 등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또 남성고객들이 패션 아이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해 매장 내에 비치하고 백화점 홈페이지에도 패션 정보를 제공할 할 예정이다.

피부에도 신경을 쓰는 남성들이 늘면서 남성용 기능성 화장품도 매출도 늘고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남성들이 자외선차단제, 미백, 주름개선, 피지컨트롤 등 기능성 제품을 선호하며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매년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오휘포맨' '비오템 옴므' 등 남성 전용 화장품의 매출이 전달 동기간 대비 브랜드별로 4%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백효과가 있는 화이트닝 제품과 주름개선 에센스 등 기능성화장품을 많이 찾고 있다.

또 직접 매장을 찾아 피부 상담을 받는 남성 고객들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라네즈 옴므 선블럭 로션 매출이 매년 20%씩 늘고 있다.

피부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주시 서구 A피부관리숍에 따르면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남성들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증가했으며 문의전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초식남=온화하게 풀을 뜯는 초식동물처럼 부드럽고 온순하며 자기애가 강한 남성을 일컫는 신조어로 '초식계 남자'의 준말. 남자다움을 내세우는 남성상(육식남)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종격투기나 축구 같은 남성적인 스포츠 대신 패션이나 뷰티 등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주위 여성을 연애 대상이 아닌 친구로 여긴다.

〈사진 KBS제공〉

■ 장터 소식

함평특산물전 개최

광주신세계백화점이 함평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25일까지 나비 생태관, 한우 아트 전시, 함평특산물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1층 광장에는 나비 생태관을 설치해 나비, 장수풍뎅이,사슴벌레 등 살아있는 곤충을 전시한다. 함평천지한우를 예술작품으로 시각화한 한우 아트 전시도 열린다.

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는 향토 특산물전을 열고 함평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특산물 등 가공식품 100여가지 상품을 10~30% 가량 할인판매한다.

가전가구 '가을 웨딩페어'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8층 가전가구 매장에서 '가을 웨딩페어'를 연다. 결혼을 앞둔 고객(청첩장 소지자)에 한 해 동우꽃돌침대, 디자인벤처스가구, 침구 레노마, 님프만, 아이리스, 쉐모아, 파코라반, 엘르, 샤론에서는 1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삼성전자 지펠냉장고(173만원), 삼성 드럼세탁기(139만원), LG 디오스냉장고(99만원), 엘르 면패드(3만9천원) 등에 판매한다.

코오롱 'JOY KOLON' 개장

빅마트 빅시티점에 전국 최대규모의 코오롱 직영점 'JOY KOLON'이 내달 문을 연다.

매장 규모만 1천652.9㎡로 코오롱패션에서 출시되고 있는 모든 브랜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매장은 '코오롱스포츠', '잭니클라우스', '엘로드', '캠브리지멤버스', '헤드' 등 15개의 인기 브랜드들로 구성되며, 휴게실 등 각종 고객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의류매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데톨 항균 비누' 4종 출시

데톨은 항균 성분과 향을 업그레이드한 신제품 '데톨 항균 비누' 4종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항균 성분 PCMX를 TCC(트리클로카본) 성분으로 교체해 기존의 99.9% 항균 기능은 우수해지고 항균성분에서 특유의 향을 제거해 부드럽게 개선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국 대형마트와 약국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개당(100g) 1천400원이다.

'아르마니폰' 내달 국내 출시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팔고 있는 명품 휴대전화인 '아르마니폰'을 내달 중순 국내에 첫 출시한다.

삼성전자가 아르마니폰을 국내에 내놓기로 한 것은 AMOLED 액정의 라인업(제품군)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휴대전화' 바람을 더욱 거세게 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이마트에 가면 '팔도 소주' 한자리에

전국 매장에서 판매

신세계 이마트가 전국 팔도의 지역 소주를 모든 매장에서 함께 판매한다.

이로써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소주는 광주 잎새주, 강원도 산소주, 충청 O2린, 전북 하이트소주, , 경북 참소주, 부산 시원소주, 경남 화이트소주, 좋은데이, 제주도 한라산소주, 한라산물 순한소주 등 10종이다.

이마트는 그동안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주를 부분적으로 판매해왔지만, 전국의 모든 소주를 한꺼번에 판매하는 것은 대형마트 업계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지역 소주의 경우 '자도주(自道酒)'라고 불릴 만큼 해당 지역내 시장 점유율이 평균적으로 70~80%로 높았지만, 지역내에서만 소비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지방 소주 업계 역시 이번 이마트 판매를 통해 지역내로 한정돼 있던 유통망에서 벗어나 최대 시장인 수도권으로 판로를 확대하게 됐다.

가격은 1천120원에 판매되는 한라산소주와 1천100원에 판매되는 한라산물 순한소주를 제외하면 모두 1천원으로 동일하다.

이마트 주류 담당 윤덕원 바이어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나 '고향 소주'를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 소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